



한국의 사회동향

Korean Social Trends 2023

<http://sri.kostat.go.kr>

2023



통계청

통계개발원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태도와 특징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혼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들의 비중은 최근 들어 감소하고 있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혼인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중이 더 낮고 연도별 하락 폭도 더 크다.
-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결혼 적령기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중장년층보다 결혼 자금 등 경제적인 이유를 지적하는 비중이 높았다.
- 우리나라 사람들 대다수가 2명을 이상적인 자녀로 생각하고 있지만, 20대와 30대 청년들은 1명을 이상적인 자녀라고 생각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 가임기 30~34세 기혼 여성들의 이상 자녀수는 2009년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1년도 조사에서 2명 아래로 떨어졌다.
- 가임기 30~34세 기혼 여성들은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 자녀수 그리고 기대 자녀수보다 더 적은 수의 자녀를 낳고 있다.
- 출산을 결정할 때 중요한 사항으로 청년들은 경제적인 이유, 가정 내 양성 평등, 보육 서비스 이용 가능성을 주로 지적하였다.

우리나라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매해 최저 수준을 갱신하고 있다. 저출산은 인구 고령화와 같은 인구 구조의 변화를 초래하여 사회경제적인 부담을 가중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출산율 제고

를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강구해 오고 있다. 인구 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국내 출산율이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를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출산이 혼인한 부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에서 혼인에 대한 태도는 출산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이 글은 청년들의 혼인에 대한 태도의 연도별 변화와 최근 현황을 살펴보고, 연령별·성별·지역별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를 비교 분석한다.

현대 사회에서 임신과 출산은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라 사전에 세워진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행동이다. 따라서 출산에 대한 태도를 통하여 한 국가의 출산 수준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다. 이상 자녀수는 출산에 대한 태도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측정 지표이다. 이상 자녀수와 실제 출산 자녀수의 차이를 통해 출산에 대한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알 수 있다. 저출산 대응 정책은 이러한 간극을 좁히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글은 주요 가임기 연령대인 30~34세 기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상 자녀수와 기대 자녀수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고, 실제 출산 자녀수와 이상 자녀수 및 기대 자녀수의 차이를 분석



한다. 또한 이상 자녀수를 연령별·성별·지역별로 분석하고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본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출산 결정 시 주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도 알아본다.

이 글의 분석을 위해서 통계청 2008~2022년 「사회조사」 자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74~2009년 「출산력 부인 통합화일」, 2012, 2015,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21년 「가족과 출산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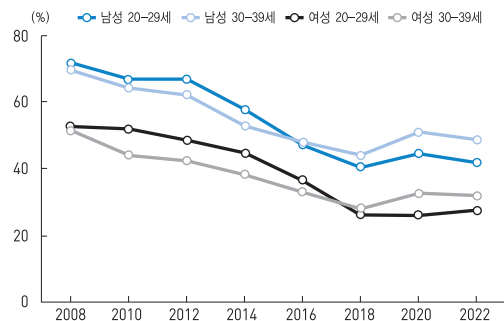
청년의 연령은 「청년 기본법」에서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청년의 연령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한국에서 평균 초혼 연령이 30세 초반이며 자녀 출산이 40세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고에서는 분석 대상을 법적인 청년 연령 19~34세로 한정하지 않고, 혼인과 출산이 주로 이루어지는 연령대인 20대, 30대, 40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청년들의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

우리나라 20대와 30대의 결혼에 대한 태도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그림 I-11]을 보면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20~30대 남성의 비중은 2008년 대략 70%대 수준으로 높았지만 점차 하락하여 2022년 현재 30대 남성 48.7%, 20대 남성 41.9%가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20~30대 여성 중에서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중도 감소하였다. 2008년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20~30대 여성의 비중은 약 50%에 가까운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2022년 현재 30대 여성의 31.8%, 그리고 20대 여성의 27.5%만이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락 폭은 20대 남성과 여성이 약 40%가 넘고 30대 남성과 여성은 약 30%가 넘어서 20대의 하락 폭이 더 컸다. 성별로 비교해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중이 낮고 하락의 폭도 더 컸다.

[그림 I-11] 성별 20, 30대 청년들의 결혼에 대한 태도, 2008~2022



주: 1) 20~30대를 분석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귀하는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1= 반드시 해야 한다’ 혹은 ‘2=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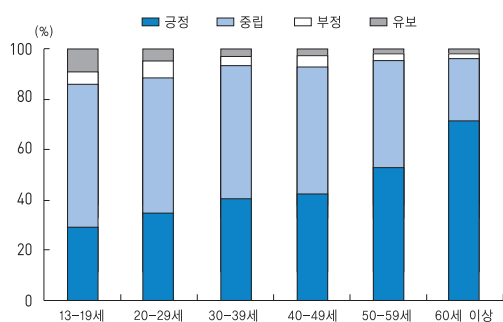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결혼에 대한 태도의 세대 간 차이

모든 연령대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 혹은 “하는 것이 좋

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 하지만 20대와 30대 청년들은 50대 이상 중장년층에 비해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중이 낮고,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높았다.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혹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청년 세대를 포함하여 모든 연령 집단에서 7% 이하로 낮다. 한편, “모르겠다”는 유보적인 답변을 보인 비중은 아직 결혼 적령기에 도달하지 않은 10대와 20대 청년들이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그림 I-12).

[그림 I-12] 연령별 결혼에 대한 태도,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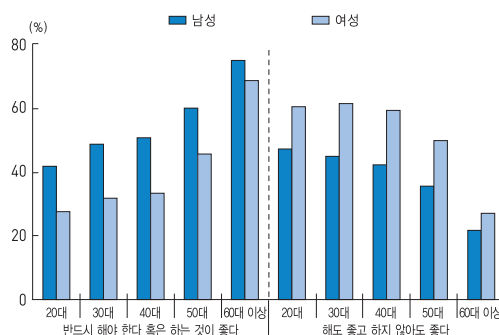
주: 1) 통계치는 “귀하는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1=반드시 해야 한다’ 혹은 ‘2=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경우를 긍정, ‘3=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를 중립, ‘4=하지 않는 것이 좋다’ 혹은 ‘5=하지 말아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를 부정, ‘6=잘 모르겠다’를 유보적인 의견으로 구분하여 해당 범주에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2022.

[그림 I-13]은 성·연령별 결혼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결혼에 대한 태도를 성별로 볼 때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인 응답을 보인 사람들의 비중은 청년층과 중장년층 모두 남성이 여성

보다 더 높았다. 하지만 결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응답 비중은 청년층과 중장년층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았다. 결혼에 대한 태도의 성별 격차는 30대와 40대가 50대 이상의 중장년층보다 컸다.

[그림 I-13] 성·연령별 결혼에 대한 태도,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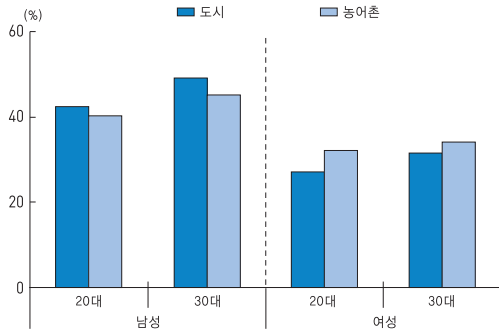
주: 1) 통계치는 “귀하는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1=반드시 해야 한다’ 혹은 ‘2=하는 것이 좋다’, ‘3=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2022.

[그림 I-14]는 도시와 농어촌 지역 20~30대 청년들의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의향을 조사한 결과이다. 20대와 30대 농어촌 남성들은 같은 연령대 도시 남성들보다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중이 낮았고,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도 전반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농어촌 지역 20대와 30대 여성의 경우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중이 도시보다 높았다. 결혼 의향의 성별 격차가 도시와 농어촌 지역 사이에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I-14] 지역·성별 20, 30대 청년들의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 2022



주: 1) 통계치는 “귀하는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1=반드시 해야 한다’ 혹은 ‘2=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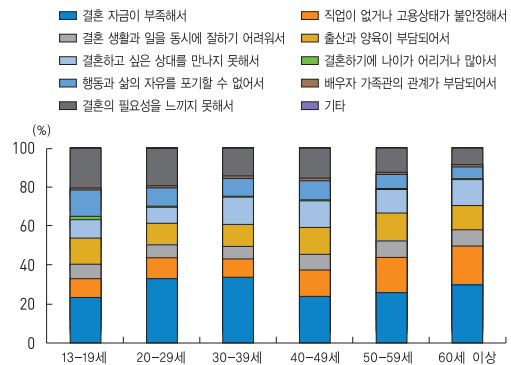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22.

결혼하지 않는 이유

[그림 I-15]는 연령별로 생각하는 결혼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이다. 모든 연령대에서 생각하는,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결혼 자금 부족’을 꼽았다. 이러한 경향은 20대와 30대가 중장년층보다 강했다. 그다음으로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청년층과 중장년층 사이에서 다르게 나타났다. 50대와 60대는 ‘직업이 없거나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라고 응답한 반면, 20대, 30대, 40대는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고 응답하였다. ‘행동과 삶의 자유를 포기할 수 없어서’는 20대, 30대, 40대에서 약 10%를 차지한 반면, 50대와 60대에서는 이보다 낮게 나타났다. ‘결혼 생활과 일을 동시에 잘하기 어려워서’ 혹은 ‘출산과 양육이 부담되어서’와 같은 일·

가정 양립과 자녀 부담을 지적한 비중은 모든 연령 집단에서 약 20% 내외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결혼하고 싶은 상대를 만나지 못해서’라고 응답한 비중도 30대 이상 연령 집단에서 약 12~14% 수준으로 비슷했다.

[그림 I-15] 연령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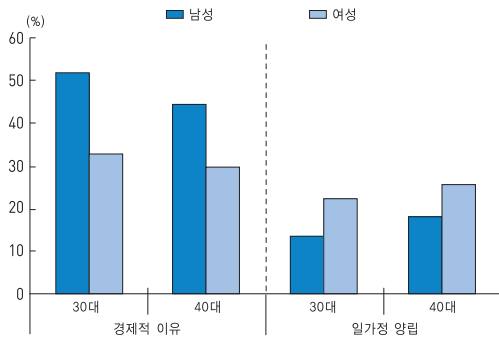
주: 1) 통계치는 “귀하는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1=결혼자금(혼수비용, 주거마련 등)이 부족해서’, ‘2=직업이 없거나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 ‘3=결혼 생활과 일을 동시에 잘하기 어려워서’, ‘4=출산과 양육이 부담되어서’, ‘5=결혼하고 싶은 상대를 만나지 못해서’, ‘6=결혼하기에 나이가 어리거나 많아서’, ‘7=행동과 삶의 자유를 포기할 수 없어서’, ‘8=배우자 가족과의 관계가 부담되어서’, ‘9=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10=기타’ 중 한 범주에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2022.

[그림 I-16]은 성별에 따른 30대와 40대가 생각하는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를 조사한 결과이다. ‘결혼 자금이 부족해서’ 혹은 ‘직업이 없거나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라고 경제적인 이유를 응답한 비중은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경제적인 이유 비중의 성별 격차는 결혼 적령기인 30대와 40대가 다른 연령대보다 더

켰다. ‘결혼 생활과 일을 동시에 잘하기 어려워서’ 혹은 ‘출산과 양육이 부담되어서’와 같이 일·가정 양립과 자녀 부담을 지적한 비중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다.

[그림 I-16] 성별 30, 40대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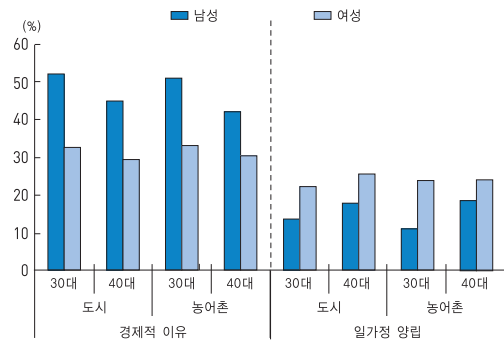
주: 1) 통계치는 “귀하는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비율임.
2) 경제적인 이유는 ‘1=결혼 자금(혼수비용, 주거마련 등)이 부족해서’ 혹은 ‘2=직업이 없거나 고용 상태가 불안정해서’라고 응답한 경우, 일가정 양립은 ‘3=결혼 생활과 일을 동시에 잘하기 어려워서’ 혹은 ‘4=출산과 양육이 부담되어서’라고 응답한 경우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2022.

[그림 I-17]은 도시와 농어촌 지역 30~40대 청년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를 조사한 결과이다. ‘결혼 자금이 부족해서’ 혹은 ‘직업이 없거나 고용 상태가 불안정해서’와 같은 경제적인 이유를 응답한 30대와 40대의 비중은 도시와 농어촌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거주 지역과 무관하게 결혼하는 데 따르는 경제적인 부담에 대해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많이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0대와 40대 여성들 중에서 ‘결혼 생활과 일을 동시에 잘하기 어

려워서’ 혹은 ‘출산과 양육이 부담되어서’라고 지적한 비중도 도시와 농어촌에서 유사하게 나타나, 일·가정 양립과 자녀 양육 부담 역시 도시와 농어촌 거주 여성이 모두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17] 지역·성별 30, 40대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 2022



주: 1) 통계치는 “귀하는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비율임.
2) 경제적인 이유는 ‘1=결혼 자금(혼수비용, 주거마련 등)이 부족해서’ 혹은 ‘2=직업이 없거나 고용 상태가 불안정해서’라고 응답한 경우, 일가정 양립은 ‘3=결혼 생활과 일을 동시에 잘하기 어려워서’ 혹은 ‘4=출산과 양육이 부담되어서’라고 응답한 경우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22.

이상 자녀수의 연도별 변화

[그림 I-18]은 기혼 여성의 이상 자녀수, 출산 자녀수, 기대 자녀수의 연도별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가임기에 해당하는 30~34세 여성의 이상 자녀수는 1970년대에 약 3명에 가까운 수준을 보였다. 이상 자녀수는 점차 하락하여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인구대체수준인 약 2명을 웃도는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후 이상 자녀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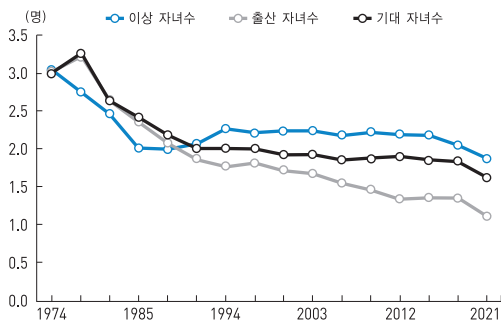


2명대를 유지하다가 2021년에 와서 2명 이하로 하락하였다.

가임기 30~34세 기혼 여성들이 낳는 출산 자녀수도 점차 하락하고 있다. 1970년대만 하더라도 약 3명에 가까운 출산 자녀수를 보였지만, 점차 하락하여 1990년 이후 2명 이하로 감소하였고, 2009년 이후부터는 1.5명 이하가 되었다. 2021년 현재 30~34세 여성의 평균적인 출산 자녀수는 1.12명이다. 전반적으로 출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30~34세 여성의 평균 자녀수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대 자녀수는 여성들의 출산 자녀수에 추가적으로 더 낳기를 희망하는 자녀수를 합한 수치다. 기대 자녀수는 1970년대 약 3명 수준을 보였으나 1980년대 이후 약 2명에 가까운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이후 2015년 1.86명, 2018년 1.84명 그리고 2021년 1.63명으로 점차 하락하고 있다.

[그림 I-18] 30~34세 기혼 여성의 이상 자녀수, 출산 자녀수, 기대 자녀수, 1974~2021



주: 1) 30~34세 기혼 여성들을 분석 대상으로 함.

2) 기대 자녀수 = 출산 자녀수 + 추가 출산 희망 자녀수.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출산력 조사」, 1974~2012;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기혼여성」, 2015, 2018; 「전국 출산력 조사」; 「가족과 출산조사」,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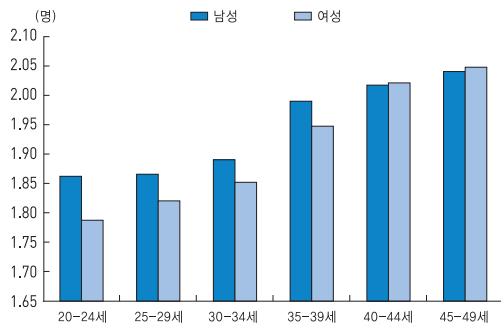
1970~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30~34세 여성들의 이상 자녀수는 출산 자녀수 혹은 기대 자녀수보다 적었다. 가족계획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였던 시절에는 여성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자녀수보다 실제로 더 많이 낳았거나, 혹은 더 많이 낳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는 1990년대 이후부터 변화되어 이상 자녀수는 출산 자녀수 혹은 기대 자녀수보다 많게 되었다. 최근에 와서 30~34세 기혼 여성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수보다 실제로 더 적게 낳거나, 혹은 더 적게 낳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상 자녀수와 출산 자녀수 간의 격차는 2012년에 0.85명으로 가장 컸으며 이후부터 점차 좁혀지고 있다. 출산에 대한 이상과 현실 간의 간극이 좁혀지는 이유는 출산 자녀수가 이상적인 수준으로 회복되어서가 아니라 출산 자녀수 감소와 더불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수 역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 자녀수의 집단별 차이

[그림 I-19]는 성별에 따른 20~40대의 평균 이상 자녀수를 보여주는 것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이상 자녀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0대 이상은 이상적인 자녀수를 2명 이상으로 보고 있는 반면에, 20대와 30대의 이상 자녀수는 2명보다 적다. 또한 40대에서는 성별 차이가

[그림 I-19] 성별 20~40대의 이상 자녀수, 2021



주: 1) 통계치는 "일반적으로 자녀를 둔다면, 몇 명의 자녀를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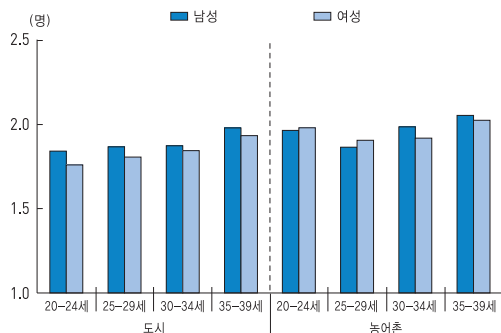
2)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2021.

거의 없지만, 30대 이하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의 이상 자녀수가 더 적은 편이다.

[그림 I-20]은 도시와 농어촌 지역 20, 30대 청년들의 평균 이상 자녀수를 보여주는 것이다. 조사 결과 농어촌지역 청년들의 이상 자녀수는

[그림 I-20] 지역·성별 20, 30대 청년들의 이상 자녀수, 2021



주: 1) 통계치는 "일반적으로 자녀를 둔다면, 몇 명의 자녀를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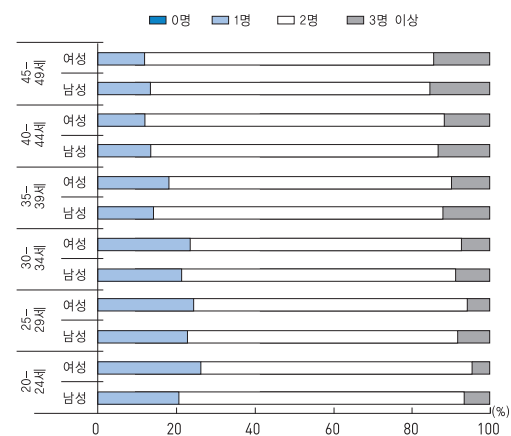
2)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2021.

도시지역 청년들과 별 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비교해 볼 때 농어촌 지역 20, 30대 여성의 이상 자녀수는 남성과 유사하거나 다소 높은 반면, 도시지역 20, 30대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이상 자녀수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와 농어촌 지역 청년들의 자녀 선호도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I-21]은 성·연령별 이상 자녀수 분포를 보여주는 것이다. 조사 결과 모든 연령 집단에서 약 70%에 가까운 사람들이 2명을 이상적인 자녀수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여전히 우리나라 사람들 대다수가 2명의 자녀를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4세에서는 다른 연령집

[그림 I-21] 성·연령별 이상 자녀수 분포, 2021



주: 1) 통계치는 "일반적으로 자녀를 둔다면, 몇 명의 자녀를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비율임.

2)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3) '0명'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0.0~0.2%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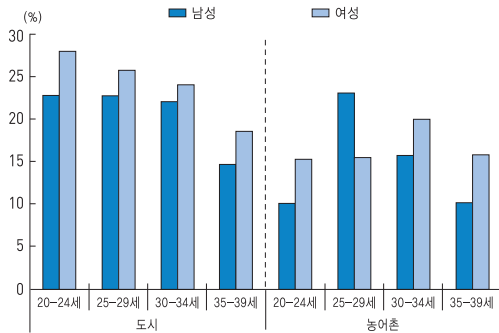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2021.



단 대비 1명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구분해 보면 1명을 선호하는 비중은 20대와 30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으며, 3명을 선호하는 비중은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그림 I-22]는 도시와 농어촌 지역 20, 30대 청년들이 1명을 이상적인 자녀수라고 응답한 비중을 보여주는 것이다. 조사 결과 도시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다. 반면에 농어촌에서는 20대 후반에서 1명을 선호하는 비중이 여성보다 남성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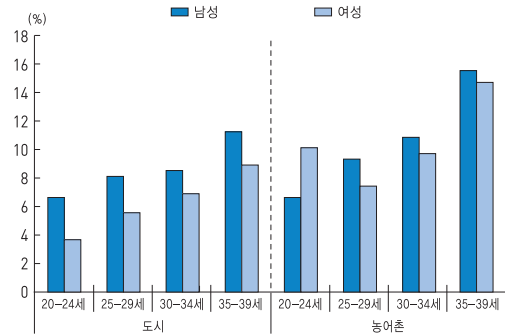
[그림 I-22] 지역·성별 20, 30대 청년들이 1명을 이상 자녀수로 생각하는 비중, 2021



주: 1) 통계치는 "일반적으로 자녀를 둔다면, 몇 명의 자녀를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1명이라고 응답한 비율임.
2)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2021.

3명 이상을 이상 자녀수로 응답한 20, 30대 청년의 비중은 도시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았지만, 농어촌은 20대 초반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그림 I-23).

[그림 I-23] 지역·성별 20, 30대 청년들이 3명 이상 자녀수로 생각하는 비중,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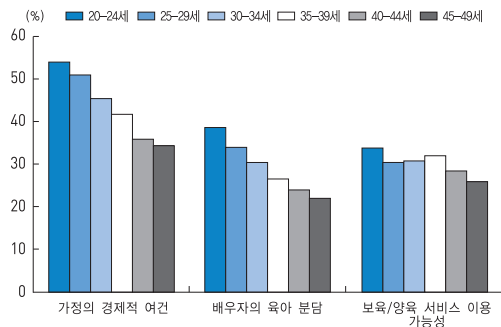


주: 1) 통계치는 "일반적으로 자녀를 둔다면, 몇 명의 자녀를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3명 이상이라고 응답 비율임.
2)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2021.

출산 결정 시 청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

[그림 I-24]는 20~40대 청년들의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조사 결과 젊은 연령층일수록 '가정의 경제적 여건'과 같이 경제적인 이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중이 높았다. '배우자의 육아 분담'이 출산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중도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 출산을 하는데 가정 내에서 양성 평등에 대한 요구가 젊은 연령층 사이에서 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보육/양육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중도 젊은 연령층에서 높지만, 경제적 여건이나 육아분담에 비해서는 연령별 차이가 작은 편이다.

[그림 I-24] 연령별 출산 결정 시 고려사항, 2021



주: 1) 통계치는 "사람들이 출산을 결정할 때 다음의 사항을 얼마나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가족과 출산 조사」, 2021.

맺음말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다수가 결혼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2명을 이상적인 자녀수로 여기고 있다. 하지만 청년들은 중장년층과 비교하여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중이 낮고, 1명을 이상적인 자녀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높았다.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태도는 성별 그리고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농어촌 남성 청년들은 도시 남성 청년보다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중이 낮았다.

가임기 기혼 여성들의 이상 자녀수는 인구대체 수준인 2명 정도를 계속 유지해 오다가 2021년에 와서 2명 이하로 하락하였다. 출산 자녀수와 이상 자녀수 간의 간극도 지속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농어촌의 이상 자녀수가 도시의 이상 자녀수보다 높지만, 20~30대 농어촌 청년들의 이상 자녀수는 도시 청년들과 비교하여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청년들이 생각하는 출산 결정 시 주요하게 고려되는 사항으로 경제적인 여건, 가정 내 양성 평등 수준, 보육 서비스나 육아 휴직 이용 가능성 등 정책적인 환경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글의 분석 결과는 청년들이 혼인과 출산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와 욕구가 중장년 세대와 비교하여 다르다는 사실을 말한다. 같은 청년층 내에서도 도시 거주 청년과 농어촌 거주 청년들 사이에서 차이가 발견되었다. 따라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청년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청년들이 혼인과 출산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으로 지적한 경제적인 여건, 양성 평등, 정책적인 여건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